

buddhanews.com

나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고 잘라서 먹어 봐라!

25면에서 계속

거은 마음이 생기결랑 '즐거은 마음을 내게 해서 감사해!' 하고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거기다가 놓으세요. 이게 바로 꼭 부러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스스로 거길 믿으면 스스로 잘되게 이끌어 갑니다. 책은 그냥 어느 한 개체의 물건과 같은 겁니다. 로봇 있죠? 로봇에게 어떠한 물건을 움직이게 할 때는 시키는 누군가가 단추를 눌러서 그 몸뚱이가 움직여주듯, 지금 우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잘 가게 해서 감사해!' 또, 어디가 고장이 났다 이렇다면 '고장이 나게 한 것도 너니까 고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자꾸 해 보면 나중엔 힘이 생기게 돼요. 힘이 생기게 돼서 '허허, 내가 괜히 그랬구나. 그렇게 한들 저쪽에 해로운 것도 없고, 잘될 것도 없는데 괜히 내 생각으로 해서 나만 괜히 그렇게 됐구나.' 하고 아마 뒤우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좋아도 거기에 감사하게, 또 나빠도 거기에 '네가 한 거니까.' 하고 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랬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데, 오신통이라는 그 작자가 바로 컴퓨터와 같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그 능력을 한데 합해서 그냥 컴퓨터라고 이름 해도 좋다. 그래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다시 거기다 입력을 하니깐 그릇이 비터라. 자꾸자꾸 그릇이 비고 또 비고 또 비고, 그러는 대로 자꾸 입력을 하니가 완전히 해맑게 그릇이 비터라. 그래서 아주 밝게 자기라는 놈이 등장을 하려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팔자 운명이라고 하고, 현실에 나오는 것을 되집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은 팔자 운명이 붙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내고 그하는 것도 이게 알고 보면요, 몸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과성·업보성·세균성·영계성·유전성입니다. 그것이 다섯 가지가 포함돼서 많으나 적으나일 뿐이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고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냥 병들어서 죽게 하고, 그렇게 해야 원수를 갚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기에 속아서 자꾸 그 마음을 나오는 그대로 쓰니까 힘들게 죽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팔자 운명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거기가 놓으면 그대로 만사가 태평입니다. 팔자 운명이 자꾸 없어지니까요. 팔자 운명이 없어지고 새 물도다가 그냥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입력하는 대로 현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셔야 할 겁니다. 겉잡지 마시고요.

무조건 믿고, '화내는 것도 너 아니야? 화안 나게 해!' 해도 좋습니다.

보시를 하려다 다른 데 쓴다면

질문: 스님께서 대중법회 중에 스스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발원하면서 마음으로 얼마를 해야겠다고 정한 보시금을 우선 급하니가 급한 데 먼저 쓰고 나서 다음에 행편이 나아지면 그때 보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건은 받고 물건값을 주려다가 다시 받아오는 경우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까. 저는 이를 대통령도 자기가 만든 법은 지켜야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되돌려 놓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 물론 돌이 아닌 까닭을 알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무명에서 벗어나서 여여하게 다스리고

슨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 물건이 영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에이, 그냥 시주를 부쳐님 앞에 해 봐야겠다.' 그러곤 시주를 그때에 오만 원인가? 있어버려서 모르겠어요, 얼만지. 그래서 시주를 하려고 그거를 이불 갈피 속에다 넣어 놓고는 딱 나왔는데 아, 그 물건을 하는 데 돈이 모자라서 찢절때다 보니까 그걸 도로 갖다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물건을 되찾아가려하는 얘기에요. 그 물건을 그냥 다 가져가려하는 거예요. 돈 낸 것 그냥 다 쥐 버리고요.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도.

그래서 와 가지고는 울고불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왜 시주는 했다 도로 빼앗아 갔어?' 그랬더니 '아이고, 애들 학교에 뭘 내는데 그걸 낼 게 없어서 그냥 찢절때고 물건도 하는 데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그거 되던 바로 또 날

님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몸뚱이로서는 문을 꼭 찾아서 들어가야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마음은 말이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마음이 나가죠? 지금 이 자리에서 집에 갔다 와 보세요. 어디로 나가야죠? 마음이 문을 찾아나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야 될까요? 난 여기서 저 건너 내 방이 있는 데를 가려면 그냥 벽도 붓장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나가는데 말입니다. 저 건너방 가는 것이나 지구 전체를 도는 사이가 같은 사이예요. 다른 우주나, 태양에, 또 다른 행성에 간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쌍씩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몸속에서 수없는 입자가 만악에 벽도 없고 붓장도 없이 그냥 나간다면, 문도 없이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를 두고 '천백약화

기 때문에 그걸 부처라고 이름했고, 공덕이라고 이름을 했죠. 공덕! 일산(日善)의 공덕은 크고 작음도 없이 그렇게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자기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그 주인공이 문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이라야 되는 거지 판 구멍은 없어요. 과거, 미래를 돌 아나게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문은 그 문밖에 없어요.

진리를 부르는 이름이 다른 이유?

질문: 화두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교라고 생각합니다. 큰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인공을 잡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선방에서는 '이 뭘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의 어떤 선지식은 '내가 누구인가?' 했고 또 어떤 이는 '내가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깨치신 분들마다 화두의 표현이 다른 것을 볼 때 이는 무슨 도리가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하나인 것 같은데 표어가 다른 것은 시대나 법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이 점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이게 뭘고?' 하고 그 이름만 생각하고 직설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수박을 놓고 '이게 뭘고?' 하고 굴리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건 '그대로 수박을 잘라서 먹어라.' 이겁니다. 그대로 수박을 잘라서 먹는다면 바로 영원히 먹일 씨도 나오고 또한 맛도 알고 그럴 테니까 '잘라서 먹어라' 이런 겁니다.

그 많은 이름을, 그 많은 공안을 다 놓고, 못 믿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깐 상대성도 생겼고 세상도 벌어졌고 부처가 있는 줄도 알았지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없는 거 아니니까? 무조건이냐? 내가 있었니까 나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고 잘라 먹어 봐라 이소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인공' 하면 전체 한데 합쳐진 주인공입니다. 개별적인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면으로나 외부로나 모든 게 한마음으로 뭉쳐진 자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공(空)해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틀림없이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그냥 '나무는 전체 뿌리를 믿어라. 네 나무는 전체 뿌리에서만이 너 나무가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 살 수 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형성돼서 심부름꾼으로 있지 않은가.' 이런 걸 믿고 무조건 놓아라. 무조건 믿고 거기에 맡겨 놓아라 이런 겁니다. 맡겨 굴러라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있기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니 이름을 가지고서 굴러다 보면 십 년이 가도 그만, 이십 년이 가도 그만, 삼십 년이 가도 그만입니다. 먹어 봐야 맛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저런 이름의 말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벗어나서 그대로 믿고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언제나 내 생각으로써 나의 기준으로써 잣대를 삼지 말고

한번 내가 상대방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돼 봐라

그러면 그 습성이 차차차 없어진다

구족(具足)한 사람들은 그것을 따질 필요도 없죠. 그러나 지금 배우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꼭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때에 따라서 어려워도 우리가 이젠 참 감사하니까 시주를 해야겠다 이라고 때 놓지 않습니까? 때 놓고 있다가 그 이튿날이오 언제고 이거 돈이 급해서 찢절때다가 아이구, 어디 가서 팔 때도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서 꾸어 쓴다 이런 생각으로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물건을 산 값입니다. 이 돈을 시주를 하면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물건을 산 겁니다. 그럼 물건은 가져오고 물건 값은 도로 빼앗아 온다면 그런 것 물건 사 왔던 걸 도로 빼깁니다. 그러니까 이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이나 내 삶, 부처님,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 잘 알아서 정성껏 새 돈으로 바꿔서, 이젠 정성이니까 미리 아예 이렇게 떼어 놔라 이래야지 무턱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씌어서 이렇게 해 놓고 도로 갖다 쓰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그것을 왜 그렇게 내가 일러 주느냐 하면 싹 몇 해 전에 영등포에 사는 사람이 공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인데 그저 요만한 하꼬방처럼 해 놓고서 사글세를 들어서 있으면서 먹고 살 양으로 무

어 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부처님 법이 자체가 그대로, 그대로 법이 절대로 자기 속에 있는 게 모든 의식을 입자로 내보낼 때 그렇게 한 게 없죠. 그런데 무슨 문이 필요합니까? 문은 이 몸뚱이, 모습이 있는 걸로 족하지 진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문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창과 칼과 활을 썼는데 그 뒤에 어떻게 뺐습니까? 총, 대포, 뭐 심지어는 로켓까지 올라가고 말이예요. 그렇게 되잖습니까? 또 그것보다 더 광대한 문제를 어디서 가져와요? 그리고 빛보다도 더 빠르고 한계에 부딪치지 않고 가고 올 수 있는 거, 가고 올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문을 찾으며 배우려고 하지 마라. 문을 찾으며 공부하는 자는 학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찾는 거고,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하는 건 문이 없는 문을 찾지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마음은 문을 찾지 않아도 아무 데고 문이 된다는 거, 은산혈벽도 문이 된다는 거, 깊은 물도 문이 된다는 거, 허공도 문이 된다는 거, 그냥 어디고 문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미생물까지도. 그렇게 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

신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뻘다는 것만 해도 아주 최상의 첨단이죠. 그래서 인간이 마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게 모든 의식을 입자로 내보낼 때 그렇게 한 게 없죠. 그런데 무슨 문이 필요합니까? 문은 이 몸뚱이, 모습이 있는 걸로 족하지 진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문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창과 칼과 활을 썼는데 그 뒤에 어떻게 뺐습니까? 총, 대포, 뭐 심지어는 로켓까지 올라가고 말이예요. 그렇게 되잖습니까? 또 그것보다 더 광대한 문제를 어디서 가져와요? 그리고 빛보다도 더 빠르고 한계에 부딪치지 않고 가고 올 수 있는 거, 가고 올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문을 찾으며 배우려고 하지 마라. 문을 찾으며 공부하는 자는 학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찾는 거고,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하는 건 문이 없는 문을 찾지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마음은 문을 찾지 않아도 아무 데고 문이 된다는 거, 은산혈벽도 문이 된다는 거, 깊은 물도 문이 된다는 거, 허공도 문이 된다는 거, 그냥 어디고 문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미생물까지도. 그렇게 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

문 아닌 문을 찾으면서

질문: 문 아닌 문을 찾되 문 아닌 문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찾는 것이며 그 문 아닌 문 안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스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킨 체체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도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적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 불가능하였던 중풍 수술했다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클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클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調)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 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들에게 선을 보입니다.

이 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으므로 불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입니다.

신간

21C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차례]

- 제 1장-기본학습
- 제 2장-중요경전
- 제 3장-불공편
- 제 4장-진언과 다라니
- 제 5장-각종발원문
- 제 6장-기도제원수기
- 제 7장-불서출판수지공덕
- 제 8장-내면탐사와 예레33천통기도
- 제 9장-자가가도법
- 제 10장-불교기초지식
- 제 11장-권선문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한국불교조계종 입종 안내

한국불교조계종은 청정한 중단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화합중단입니다. 우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순수하여 해탈 열반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탁마하고 수행정진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인류평화통일에 동참합시다.

행자 모집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1부 · 이력서 1부 · 사진 5매 · 사찰내외부사진

▶▶▶ 한국불교종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합장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문의 : 032)518-1588, 011-9524-8080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법계 전통을 자랑하는 사) 부산여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영남불교예술대학을 설립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화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중급반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법 (대령, 관육, 사시등)	수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전문반	진소리, 전통예능등 통합반	목	2시~5시	20명(1년)
작법수반	바라, 나비, 사찰하춤	금	2시~4시	30명(6개월)
국악기반	태평소, 단소, 대금 (영산회상, 청성곡등)	금	4시~6시	30명(6개월)

◆개강일 : 불기 2553년 기축년 양력 2월 3일 오후 2시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영남불교예술대학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 010-2314-1279
◆기숙사방 운영(선착순 우선):단기 수련 후 심사 거쳐 이수증 발급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부설
嶺南佛敎藝術大學
Young Nam Buddhism College of arts

※ 각종 사찰행사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 이수자스님 전국에 배정되어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마음의 힘이 모이면 어두운 길에 환한 등불이 됩니다. (보시금중 일부는 생령 나눔 실천 기금 및 장학금에 쓰입니다)

010-2314-1279, 051)327-5095